

“정치인 ‘해원상생’ 해야 한국 사회 발전”



큰 무당 나와야 정치 살아난다
지선·손석춘 공저
일마 펴냄/8천원

한국 사회 종교인의 사회적 발언은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이뤄져왔다. 흔히 종교는 ‘개인’의 행복과 불행, 혹은 인간 인식 능력으로는 명쾌하게 해명할 수 없는 어떤 초월적인 세계에 관계된다는 믿음이 뿌리 깊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범위를 넘어서서 사회적 발언을 하는 종교인이 있다면, 그는 곧 ‘정치적 종교인’으로 분류돼 편 가르키 대상이 된다. 하지만 기복신앙에 편승한 단편적인 종교의 지혜가 얼마나 개인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또 대개는 일상의 삶과는 무관한 종교적 형이상학만으로 종교가 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을까? 오히려 본원적으로 개인과 사회는 밀접히 맞닿아 있으며, 그런 면에서 종교는 사회의 정의로운 진보에 대해 활발히 발언해야 할 것 같다.

특히나 한국 3대 종교 중 하나인 불교는 이러한 사회적 발언에 있어서 많은 제약에 갇혀 있었다. 그 핵심적 가르침이 세속의 무상함을 강조하는 한편으로, 오랜 역사의 과정에서 정치적 지배세력과의 결탁이 넓고 깊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3?1운동 민족대표 33인 가운데서도 불교계 인사는 소수였으며, 민주

화운동 과정에서 가톨릭 사제나 기독교 목사에 비해 스님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는 불교가 신도 수를 놓고 볼 때 여전히 한국의 최대 종교인 점을 감안하면 안타까운 현실이다. 불교계의 존경받는 인사가 중생들의 사회적 현실에 관심 갖고 적극 발언한다면, 그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는 역사적 동력이 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책 저자인 지선 스님의 존재가 더없이 소중하다. 그가 불교계뿐만 아니라 종교계를 통틀어서도 비범한 정치적 식견을 거침없이 보여주는 까닭이다.

6월 항쟁과 불교개혁의 ‘얼굴’ 지선은 불교계에서 누구보다도 독보적으로 정치?사회 개혁활동을 펼쳐왔다. 1986년 민주화항쟁 당시 그가 성공회 성당 종루에서 ‘민주헌법정체 국민운동본부’ 방송을 개시하면서 6월 항쟁의 막이 오른 것은 위나 유명한 일화다. 그뿐만 아니라 지선 스님은 오랜 세월 안거에 참여하면서도, 한국의 정치 현실과 그 미래에 대해 빼어쁘고 통찰력 있는 발언을 거침없이 해왔다. 그런 지선 스님을 이번 책에서 인터뷰한 손석춘 건국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날카로운 질문과 압축적 서술을 통해 지선의 삶과 사상, 그리고 정치적 통찰을 유기적으로 이끌어냈다.

스님이 보는 오늘날의 한국 정치는 어떤 모습일까? 그는 뜻밖에도 무속의 정신을 통해 한국 정치의 현실을 진단한다. 즉 무속의 핵심 사상인 해원상생정신에 비추면 대 정치인들이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것이다. 해원상생이란 두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그 하나인 ‘해원’은 원통함을 풀어주는 것을 말하고, 다른



해원은 원통함을 풀어 주는 것
지선스님, 사회 개혁에 활발한 활동
“국민 해아리는 것이 올바른 정치”

하나인 ‘상생’은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을 말한다. 지선은 일부 정치인들이 “해원은 빼고 상생만 써먹고 있다”고 지적하며 “군함발로 짓밟고 사람을 때려죽여서 가슴에 한이 켜켜이 맺혀 있는데 지난 일은 없었던 걸로 하자는 게 말이 되느냐”고 통렬하게 비판한다. 그가 보기에 “땀한 한이 풀리면 상생하지 말라고 해도” 자연스레 상생이 이루어진다.

지선은 이런 현실 인식 아래 오늘날 필요로 하는 지도자 상을 제시한다. 즉 모든 이의 가슴에 맺힌 한을 풀어주는 사람, 온 국민을 위한 한바탕 ‘푸닥거리’를 하는 사람이 정치

지도자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를 마냥 덮어버리고 ‘거짓된 미래’로만 나아가려고 하는 정치세력에게 따끔한 일침을 준다. 그가 보기에 아직 해원되지 않은 역사적인 한스러움이 이 땅의 곳곳에 남아 있다. 군사 독재의 서늘에 상처 입은 청년 학생, 전쟁 같은 노동에 쓰러져간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분단 상황에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는 국민이 그들이다. 지선은 이들의 아픔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면서, 현재 한국 정치의 과제가 무엇이고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 책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롯해 지선 스님이 만난 거물 정치인에 관한 생생한 이야기와 담겨 있다. 스님은 이들의 만남을 회상하며 그들의 공과를 직설적이고 통쾌한 화법으로 평가한다.

지선 스님이 바라는 세상, 그리고 그가 제시하는 정치의 미래는 원대하다. 민주주의가 들끓어넘어 만발한 세상, 땅 파고 기계 돌리는 사람이 주인 되는 세상, 남북이 하나 돼 민족과 역사와 문화가 온전해지는 세상을 그는 진심으로 바란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너무나 이상적이고 급진적 주장이라 여길 수도 있다. 하지만 스님은 이것이 한낱 ‘꿈’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오히려 어느 날 भी 오듯 속속, 좋은 세상이 불현듯 올 것이라고 믿는다. 그의 신념이 한갓 ‘말’ 뿐으로서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그가 누구보다도 헛된 이론을 배격하고 우직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적으로 사유해온 깨달임의 결과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불교의 한 가르침이 자비가 아니라 전체가 곧 자비”

대승계의 세계
원영 편저 | 조계종출판사 펴냄 | 2만8천원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행하라.” “괴로움을 없애고, 즐거움을 얻는다.”

흔히들 얘기하는 불교의 가르침이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내용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의 가치관이나 행동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이 책의 저자 원영스님은 말한다. 이제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불교,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불교로 거듭나야 한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자비’가 있으며 그것이야말로 현실에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대승계의 정신이라고 말한다.

대승경전에서 대승계는 보통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율의계(律儀戒)다. 살생하거나 음주는 일, 잘못이 이상관계, 거짓말, 음주 행위 등 금계의 측면이 강한 것을 말한다.

둘째 선법계(善法戒)다. 이는 올바른 깨달음을 얻기 위한 각종 수행과 종교의식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는 중생계(衆生戒)다. 도움이 필요한 다른 중생을 위해 자비의 마음으로 적극 돕는 것을 말한다. 삼취정계(三聚淨戒)라고도 불리는 이 대승계는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보살이 실천해야 하는 행위들이다.

이 책은 이러한 대승계 관련 내용을 추출해 한권으로 통합 정리했다. 대승계를 전공한 저자가 대승경전과 논서에서 ‘계’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된 내용, 그리고 남을 돕는 윤리적 실천과 관련된 내용을 뽑아 대승보살의 실천행을 정리한 것이다. 보살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수행해야 하는 열 가지 착한 행이나 마음 쓰는 법, 참회할 수 있는 죄와 참회할 수 없는 죄, 한순간이라도 계를 잊으면 안 되는 이유 등 대승계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부분을 발췌하여 일반 독자들이 읽어도 이해하기 쉽게 편역했다.

이제 사람들은 자본주의에 소외된 ‘선과 정의, 공정 등의 가치와 기준’에 관하여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 그렇기 어려운 논의에서 불교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있는 형국이다. 저자

는 대승계를 말하는 이들이 이론과 실천을 현실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인정한다. 불교인들이 늘 자비를 말하면서도 정작 구체적인 현실문제에 대해서는 등한시해왔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한다.

분명, 대승불교는 실천론을 앞세우며 새롭게 정립된 불교이다. ‘자비 실천을 통해 공덕을 쌓고, 기본적인 계를 잘 준수한다.’는 초기불교 재가 불자들의 생활 원칙이 훗날 대승불교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다. 즉 ‘자비실천’은 하지 않아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계를 어기게 되는, 그야말로 적극적인 행위규범인 것이다. 저자 원영스님은 지금이 시점이야말로 다시 한 번 자비정신을 현대적 윤리관으로 재정립할 때라고 역설한다.

이 책의 중요 의미중 하나는 계율이라는 것이 단순한 규칙체계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확연히 바꾸어주고 있다는 점이다. 고상한 엄격함을 추구하는 율장에 비해 ‘자비실천’이라는 대승보살의 태도는 수행 중심에 도덕성과 자비를 함께 이성관계, 거짓말, 음주 행위 등 금계의 측면이 강한 것을 말한다.

대승경전 18권에 나온 계율 총정리
대승계, 율의계, 선법계, 중생계 등
단순 규칙체계란 계율 관념 재해석

가져다놓았다고 하는 특징이 있다. 결과적으로 자비실천은 승가율장과 대승계의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혼돈을 해결해줄 뿐만 아니라, 깊은 수준에서 자신을 바꾸어가는 불도수행의 핵심이 되는 것이다.

그럼 자비란 무엇인가? 단순히 말해서 자비란, 사람들이 생명이 있는 계율을 전공한 저자가 대승경전과 논서에서 ‘계’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된 내용, 그리고 남을 돕는 윤리적 실천과 관련된 내용을 뽑아 대승보살의 실천행을 정리한 것이다. 보살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수행해야 하는 열 가지 착한 행이나 마음 쓰는 법, 참회할 수 있는 죄와 참회할 수 없는 죄, 한순간이라도 계를 잊으면 안 되는 이유 등 대승계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부분을 발췌하여 일반 독자들이 읽어도 이해하기 쉽게 편역했다. 이제 사람들은 자본주의에 소외된 ‘선과 정의, 공정 등의 가치와 기준’에 관하여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 그렇기 어려운 논의에서 불교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있는 형국이다. 저자

김주일 기자

선사상 입장에서 도가철학 해석해

생성의 도와 선

삼재원 지음 | 정우서적 펴냄 | 2만원



자의적 해석이 다양하게 범람하고 있는 ‘노자’와 ‘장자’를 선 사상적 눈으로 읽어 신선한 느낌이 든다. 한문을 좀 안다는 자신감만으로 노자와 장자를 번역할 수 있을까. 이 책의 저자는 노자와 장자 사상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풀어내는 번역자들은 노자와 장자를 곡해하게 한다고 진단하고 이 책을 쓰게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가령, 도가철학을 설명하면서 ‘자유’ ‘평등’ ‘자연’ ‘존재’ ‘본질’ ‘소통’ 따위의 서양철학 개념들을 사용해 도가철학에는 있지 않는 사유를 하게 만들고 있다.

도가 사상에 대한 해석 문제가 아니라 학문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문제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책은 선사상의 입장에서 도가철학을 해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도가철학은 도가철학 자체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와 같이 선사상으로 도가의 ‘도’를 이해하는 것도 도가철학을 이해하는 폭을 넓혀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는데 저자의 설명이다.

두 사상을 비교하는 연구일 경우 역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두 사상이 고유하게 쓰는 용어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매치시킬 것인가 하는 것인데 저자는 이 연구 속에서 도가철학과 선사상에서 쓰는 용어들 가운데 거의 동일한 뜻으로 쓰는 것들을 먼저 앞에서 정리했다.

예를 들면 도가의 ‘物’과 선불교의 ‘法’이라든가 도가의 ‘虛’와 선불교의 ‘空’ 같이 뜻을 공유하는 용어들이다. 이로써 두 사상 간의 비교철학이 가능하게 되었고 두 사상이 같은 의미로 쓰이는 점과 다른 점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었다.

김주일 기자

‘성철스님 시봉이야기’ 동화로 재구성

성철스님의 특별한 수업

글 박민주/그림 이흥진 | 주니어 김경사 펴냄/1만원



올해는 한국 불교의 큰 기둥이셨던 성철스님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성철 스님은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낯설고 생소한 이름이지만, 부모님 세대나 스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그리움의 대상이자, 마음이 힘들 때마다 다 찾게 되는 큰 울림으로 남아 있다.

이 책은 어른들만 알고 있기에 아까운 성철 스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알려 주기 위해 기획되었다. 불교라는 종교와 상관없이 성철 스님의 훌륭한 가르침과 정신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저자인 원택 스님이 성철 스님과 지내면서 경험한 절 생활을 담은 ‘성철 스님 시봉이야기’를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재구성한 것이다.

동화 속 원택 스님은 백련사에서 생활하면서 성철 스님에게 끊임없이 잔소리를 듣고 훈이 난다. 공부도 잘하지만 생활하는 데 필요한 일에는 무지한 스님은 처음으로 쌀을 조리질하는 법을 배우고, 야채를 일정한 간격으로 썰기 위해 노력하고, 맛 좋은 씨감자를 구하는 방법을 익힌다. 이렇게 고되지만 원택 스님은 흥미로운 절 생활을 하면서 작은 일에도 정성을 들여야 큰일을 할 수 있음을 깨닫는다.

아이들은 절 생활에 대해 문외한인 원택 스님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성철 스님의 호통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 것 같다.

뿐만 아니라 재미있게 쓰인 원택 스님의 좌중우돌 절 생활을 읽으며 깔깔거리며 웃다가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왜 간소하게 먹고 쓰레기를 줄여야 하는지, 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배풀어야 하는지 깨닫고 점점 아무 지고 당찬 아이로 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일 기자

극락사 템플스테이 안내

1. 초급 중급 고급 기도 법 배우기
2. 자비명상, 마음치유명상, 행복명상, 성격개조 명상, 임종명상, 권기명상
3. 워파사나 : 사념처 관법, 오정심 관법
4. 간화선 = 선정삼매와 간화선 수행
5. 단전호흡, 도인체조, 향공, 오금회, 육단금 ..대안기공, 태극권 등...
6. 단기 출가(2박 3일 ~ 6박 7일까지)

수월스님의 BTN 불교 TV 강좌 안내

1. 월요일 17:00 2. 금요일 08:00 3. 일요일 23:00

02)434-1717

서울 중랑구 망우 본동 73-10번지 극락사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히 불전함

원목 법탁

움직이거나 던진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정보상태

원목 법상

◆ 돌발적인 정보로 침입자, 100% 도주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NAVER 무인정보불전함

서원불교 핫 043-647-2378, 011-467-1472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는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져서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똥똥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속편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기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하여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월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월빙」을 치세요.